

Immediate implant placement and socket preservation

한주영*, 박준봉, 권영혁, 허익, 정종혁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연구배경

과거에는 발치 후 3-6개월의 치유기간 경과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추천하였다. 그러나, 발치한 후 1주일내 치조골 흡수가 시작되어 3주에 협측 치조골이 상당히 얇아지며 5-6주일에 완전한 흡수가 일어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렵다.

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며 치조골의 흡수를 막을 수 있다. 또 수술횟수가 단축되며 발치와에 식립 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며 발치와의 치유력에 의해 osseointegration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. 환자의 만족도도 증대된다.

그러나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시 불리한 초기 고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primary closure(초기 봉합)을 위한 판막이 부족할 수 있다.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실패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술전 평가와 보다 정교한 술식이 요구된다.

또한 발치와를 치조제 보존술로 치조골의 흡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. 이는 특히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에서 더 중요하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치근흡수를 보이는 상악 4전치를 발치한 후 양측 측절치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중절치부위에는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였다. 6개월 후 2차수술을 시행하였다.

연구 결과

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측절치부위와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중절치부위 모두에서 유의할만한 신생골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결론

치조골의 보존을 위해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치조제 보존술의 시행으로 치조제의 높이, 폭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.